預修齋와 各拜齋의 同異*

이성운**

• 목 차 •

Ⅰ. 緖言
Ⅱ. 目的과 構成・設行의 同異
Ⅲ. 諸位의 召請과 役割의 同異
Ⅳ. 系統과 底本의 同異
Ⅴ. 結語

KCI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2011727); 아울러 2018년 8월 15일 경제어산연구소가 주최한 제3회 경제어산시연 및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완한 것이다.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淨土學硏究』 제30집, 2018년 12월, pp.199-231.

한글요약

이 논문은『예수시왕생칠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는 예수재와 각배재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본 글이다. 사후 심판을 한다고 믿는 명부 시왕을 청하여 공양을 올리는 예수재와 각배재의 同異는 兩齋(예수재와 각배재)의 목적이나 구성, 양재에 등장하는 諸位와 그 役割, 양재의 系統과 底本 등의 同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預修齋儀는 자신의 사후 칠재를 내가 닦는 자행의 의례이고, 各拜齋儀는 다른 이들이 다른 이를 천도하기 위해서 설행되는 대타성이 강한 의례이지만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목적은 양재가 동일하다.

예수재에는 造錢儀式이나 緘合疏 등이 행해지고 庫司官이 所請되지만 각배에는 설법의식으로 망자의 공덕을 지어주며 證明 三聖과 十王과 그 眷屬의 召請으로 구성된다.

예수재에서는 수륙재에서와 같이 사자의 召請儀式이 설행되나 각배재의에는 使者도 그 권속으로 청해지고만 있을 뿐이다. 사후이므로 망자가 저승에 이르렀으므로 그렇다고 보인다. 한편 풍도대제와 태산부군이라는 중국의 명부신앙이 양재에 등장하나 의미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상위의 증명 불보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장보살의 역할은 유사하지만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데 예수재에서는 지장보살의 구제가 강조되고 있는 데 비해 각배재의에서는 지장(地藏)의 體現이 강조된다. 염라왕의 경우도 예수재에서는 현실적인 國土莊嚴이 강조되는 데 비해 각배재에서는 冥界의 審判性이 강조되고 있다.

兩齋 共히 수륙의문을 잇고 있다고 보이지만 각배재의 경우는 十王勸供 儀文이라고 할 수 있는『勸供諸般文』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인다. 歌詠의 경우는 양재 공히『권공제반문』을 따르고 있는데『권공제반문』에 없는 故我偈頌이 預修齋儀에 나타나고 있다. 예수재의 16세기 간행과 집술자 대우의 17세기 생몰설에서 오는 차이는 향후 자료발굴과 함께 예수재 의문의 집술 시기와 계통 및 영향 관계 연구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있다.

주제어
예수시왕생칠경, 預修齋, 各拜齋, 靈山齋, 造錢儀式, 緘合疏, 풍도대제, 태산부군, 勸供諸般文

KCI

Ⅰ. 緖言

산 자의 사후에 자손들이나 다른 이들이 죽은 나를 위해 닦아주는 칠칠재나, 살아 있는 내가 직접 봉행하는 예수재의 주 공양 대상은 시왕으로 같다. 예수재에서 소청(所請)되는 명부위(冥府位)는 시왕재, 각배재, 대례왕공과 유사한 의식에서도 예수재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소청된다. 소청의 대상이 유사한 예수재와 각배재는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는 달리 분류되기도 한다. 한국불교의 재공의식에서 예수재는 수륙재와 같이 내용 측면으로 분류되고, 각배는 영산재와 상주권공과 같이 형식 측면으로 분류되기도 한다.[2] 그렇다면 명부의 시왕을 청하여 공양하여 선업을 닦는 예수재와 각배재의 동질성은 무엇이고 이질성은 무엇인가. 한국불교의 예수재는 수륙재와 달리 중국불교나 일본불교에서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까지 이 글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한국불교 예수재와 각배재의 같음과 다름을 통해 한국불교 예수재와 각배재[이하 필요에 따라 양재(兩齋)라고 통칭함]의 동이(同異)를 비교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불교 예수재에 대한 연구는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 생전예수재 의식의 구성과 범패에 대한 연구,[3] 현행예수재와 조선시대의 그것에 대한 비교 고찰,[4] 예수시왕생칠경판 연구[5] 등이 그것이다. 연구 경향

2) 홍윤식, 「생전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생전예수재 연구』(사/생전예수재보존회 엮음, 민속원, 2017), p.12.; 홍윤식, 「구인사 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전승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대한불교천태종, (사)진단전통예술보존회, 2015), p.19.

3) 김응기(법현), 생전예수재의 구성과 범패: 상단권공 의식 구성 중심으로」, 『선무학술논총』 12, 국제선무학회, 2002.

4) 노명렬, 『현행예수재와 조선시대 생전예수재의 비교 고찰』,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0.

5) 최미연, 『불설예수시왕생칠경판에 대한 연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을 보면 예수재와 죽음교육 등 교육적 역할이나 예수재 신앙이나 생활 연구, 예수재 설행의 전개 및 역사 연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6] 본고에서 다룰 양재의 쓰임과 구성 등에 대한 비교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글말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양재의의 목적과 구성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둘째 양재의 의식에 등장하는 소청의 대상과 역할을 또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의문의 표현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이다. 셋째 양재와 의문의 계통과 저본의 동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첫째 예수재 의문은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소재(所載) 광흥사 및 용복사본 가운데 광흥사를 우선본으로, 용복사 본을 참고본으로 삼고자 한다. 31편의 광흥사본보다 용복사본이 25편으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각배재의문은 근대의 『석문의범』에만 동일 명칭으로 소재되어 있으므로 저본으로 삼는다. 나아가 예수재나 각배재의 소청인 시왕을 소청하여 공양하는 전통의 『제반문』(석왕사, 1576)이나 『천지명양수륙의문』이 양재의문의 생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고자 한다.

Ⅱ. 目的과 構成・設行의 同異

양재의 설행 목적과 그 구성에서 같고 다름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양재의 의문과 설행 현장 혹은 양재를 대행하는 주체나 설판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한국불교의례총서』

6) 한상길, 「조선시대 생전예수재의 전개」, 『생전예수재 연구』(사/생전예수재보존회 엮음, 민속원, 2017), p.32. 주1); 최운종, 『조선전기 생전예수재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등의 의례자료에 나타나는 의문과 이후에 실제 의례 설행을 위해 편찬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해보도록 한다.

1. 目的의 同異

현재 한국불교에는 많은 의례가 있다. 대한불교조계종『통일법요집』에는 크고 작은 의례/의식들이 일용의식 상용의식 전문의식 법회 평생명절의례 독송 발원문 등으로 대 분류되어 있고 의미와 방법은 간략히 설명하고 있지만 각 의례나 의식의 설행 목적은 명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령 예를 들면 “불공(佛供)의 의미에 대해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의식이다. 불교의 명절이나 각종 불사 및 기도입제·회향시 또는 개인적인 축원이나 영가를 천도할 때 모시는 의식”[7]이라고 하며 ‘개인적인 축원이나 영가를 천도할 때’라는 목적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목적이 예수재나 각배재 등에서와 같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연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의례의식의 설행목적이 한두 가지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설행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 내부의 의식서적에는 흔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불교 외부에서 불교의 송주염송 서책 제목에는 “消災吉祥”[8]이라고 나타난다. 불교 의례의식의 목적은 소재(消災)와 길상(吉祥)에 있으므로 굳이 각 의례의 설행목적을 설명하거나 제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

7)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통일법요집』(조계종출판사, 1998), p.69.

8) 刊行處 未詳,『消災吉祥佛經要集』(1926); 松亭 金赫濟 編著,『消災吉祥佛經寶鑑』(明文堂, 1965). 전문불교인들에 의해 편찬 보급된 것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에 의해 출판된 저작들로 보인다.

1) 양재의 설행 목적

불교의례와 의식의 설행목적은 헌공을 드리게 된 연유를 밝히는 유치에서 드러내게 된다. 그런데『석문의범』(1935) 이래 현재의『통일법요집』(1998)에는 “以此因緣功德 某某之願 以今月今日 虔設法筵”이라고 하여 그 목적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의문에는 별도로 밝히지 않고 있다, “某某之願”이라는 것은 헌공의 목적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 글말에서 논의해볼 양재의 그것과 변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공의식의 유치(由致)에 해당하는 예수재의문 <통서인유편(通叙因由篇)>에 설행목적이 드러나 있다.

> 이 밤에 모처에 거주하는 신심 있는 재자 큰 단월 모인은 엎드려 현생에는 복과 수명이 늘어나고 미래에는 정찰에 나고자 하는 원을 위해 의식은 과의를 준수하여 미리 시왕생칠의 재를 올리고자 금월 모일에 모모사찰로 나아가서 큰 신심으로 보리의 원을 발원하고 세간의 진귀한 재물을 희사하여 명왕의 수승한 재회를 건립하고 음식은 백 가지 맛으로 진설하고 법은 삼승을 연설하며,[9]

현증복수(現增福壽) 당생정찰(當生淨刹), 곧 현생에서는 복과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당래하는 세상 곧 오는 세상에서는 정찰(淨刹)에 나기를 바라며 예수시왕생칠의 재를 미리 닦기 위해 어느 절로 나가서 큰 신심으로 보리의 원을 발원하고 세간의 진귀한 재물을 바쳐 명왕의 수승한 재회를 열고 백 가지 맛의 음식을 차리고 삼승의 법을 설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배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각배재의 목적을 확인해주는

9) 大愚 集述,『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卷(『韓儀叢』2), p.67,상, “是夜 卽有大檀信 某處居住 齋者 某人伏爲 現增福壽 當生淨刹之願 式遵科儀 預修十王生七之齋 以今月某日 就於某寺 以大信心 發菩提願 捨世間之珍財 建冥王之勝會 食陳百味 法演三乘.”

의문은 예수재의 그것처럼 편목의 의문으로 시설되지는 않아 상단소(上壇疏)로 내용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 이제 오늘 큰 단월 모인은 엎드려 천도하고자 하는 모인의 영가를 위하여 삼가 병법사리 한 스님과 일단의 스님들에게, 금월 금일 모산 모사에 나아가서 하루 밤의 천지명양수륙도량을 세우고 향화와 등촉과 다과와 진식을 준비하여 공양 올리는 의례를 부탁하오니,[10]

각배재의 수설대회소의 상단소문에는 단월 모인이 천도하고자 하는 모인의 영가를 위하여 '천지명양수륙도량'을 하루 밤 동안 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근명(謹命)'이라고 하여 재자가 아사리 스님과 스님들에게 정중히 명[命, 일종의 부탁]하는 형식이다.

각배재의 구조 등을 살펴보기 이전에 여기서 잠시 각배재가 편제된 의문의 상태를 통해 각배재의 설행목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각배'라는 이름으로 편제된 의문이 소재된 의식서적으로는 『석문의범』이 있는데, 재공편의 대분류 아래 '상주권공(常住勸供)' '영산재(靈山齋)' '각배재(各拜齋)' '생전예수(生前預修)' '수륙재의(水陸齋儀)'의 다섯 의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 의례의 목차로 볼 때 다섯 개의 재공의식은 동격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다섯 개의 의례에 대해 수륙재의와 예수재의는 내용상의 분류이고, 상주권공과 영산재와 각배재는 형식상의 분류라고 이해하며, 이 견해를 바탕으로 영산수륙재 영산예수재와 같은 명칭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부연설명도 있는데,[11] 분류는 의미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를 따르면 상주권공과 영산

10) 安震湖, 『釋門儀範』上卷(卍商會, 1935), p.135, "今有此日 卽有大檀信 某人伏爲 所薦某人靈駕 是以 謹命秉法闍梨一員及僧一壇 以今月今日 就於某山某寺 建置天地冥陽水陸道場 約一夜 揚幡發牒 結界建壇 嚴備香花燈燭茶果珍食供養之儀."

11) 홍윤식, 「생전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p.12.; 홍윤식, 「구인사 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p.19.

재, 각배재는 형식상의 대소(大小) 의례로 이해할 수 있다. 영산재와 상주권공은 대소의 의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각배재는 명부시왕을 각각 청해 공양하고 예경하며 아울러 하위의식이 존재하므로 영산재와 상주권공과는 동일의 유형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무슨 의미인가. 영산재와 상주권공에도 각배재와 같은 구체적인 공양의 대상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산재와 상주권공은 시방의 상주삼보를 청해 공양하고 법화 회상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각배재의 형식과는 동일의 형식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영산재의 축약형이라고 불리는 상주권공에는 『석문의범』 소재의식을 기준으로 볼 때 대회소나 개계소 등이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논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영산재의 대회소문을 통해 각배재의 그것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자.

> 이제 오늘 누구누구는 이 까닭에 수륙회의 처음에 대비심을 내고 추천의 때에 이르러 대승법사 1인과 병법아사리 스님 1인과 법사를 진행할 스님들을 초대하여 날을 잡아 이달 모일 밤에 어느 사찰에 나아가 며칠간의 천지명양수륙도량을 열어 세우고 법에 의지하여 가지하고 도량을 깨끗이 하고 향기로운 꽃을 준비하고 소를 올리기를 부탁드린다.12)

큰 틀에서는 각배재의 소문(疏文) 내용과 다르지 않다. 추천의 때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영산재가 베풀어지는 칠칠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병법아사리 이전에 대승법사 1인을 초대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대승법사 1인은 영산재의 제일 목적인 법석을 열었을 때 법문을 할 법사라고 할 수 있다. 영산재의 설행목적이

12) 安震湖, 『釋門儀範』 上卷(卍商會, 1935), p.135, “今有此日 云云 由是 水陸會 首啓大悲心 屆斯追薦之辰 邀命大乘法師一人 秉法闍梨一員 法事僧衆一壇 擇定今月某日夜 就於某處 啓建天地冥陽水陸道場 幾晝夜 依法加持 潔方隅界 嚴備香花 修疏.”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영산재의 본질은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다.

영산재의 원초기 의문들인 『작법절차』(1496)[13]나 『영산대회작법절차』(1634)[14]에 등장하는 다섯 종류의 '거불' 이전과 이후의 의식 양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각배재도 영산재처럼 재공의식으로 회주의 설법의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칠칠재의 법문과 시왕(十王)에 권공한 공덕으로 타자인 망자가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는 추천의식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설행 목적의 동이

살아서 자신의 추천칠재를 스스로 닦는 의식인 예수재의와 타인인 망자의 추천을 위해 개설되는 각배재의 설행목적의 동이(同異)는 무엇인가. 먼저 양재의 설행 목적의 첫 번째 다름은, 스스로의 복과 수명이 늘어나기를 희망하는 것과 타자의 추천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설행 목적의 같음은, 스스로이든 타인이든 정토에 나고자 하는 것이지만 살아 있는 나는 당래에 왕생을 희망하고, 망자는 중유를 벗고 즉시에 왕생하는 것이 다르다. 또 하나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스스로 행하는 재회인가와 다른 이가 대신해주는 의례인가라는 것이다.

불교는 자력을 강조한다. 자력종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스로 왕생을 하고, 스스로 성불을 하는 종교적 의례로 불교 예수재는 작동하고 있는 점이 각배재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시왕에 대한 권공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 유사한 의식이지만, 한편은 철저히 자력에 의존하지만 다른 한편은 자신의 의지는 크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양재 목적의 동이

13) 學祖 譯, 『作法節次』(『韓儀叢』 1), pp.451,하-453,상.
14) 『靈山大會作法節次』(『韓儀叢』 2), p.133.

라고 설명할 수 있다.

2. 構成의 同異

1) 兩齋의 主要 構成

의례와 의식의 성격이나 동이(同異)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의례의 목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의례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의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각배재의는 설법을 듣고 시왕을 초청하여 공양하는 의식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예수재의식을 위해서는 특별히 행하는 조전(造錢) 관련 의식과 빚을 청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함합소(緘合疏) 의식 등이 있다.

의례 진행과 관련하여 의문의 구조를 개략화해보기로 하자. 송당 대우가 집술한 『예수시왕생칠재의』(광흥사판, 1576)는 편목 기준 31편으로 구성되었고, 용복사판(1632)은 25편으로 짜여 있다. 31편을 기준으로 한 현실 예수재 의문[15]을 의례의 진행 양식 측면에서 보면, 신중작법 통서인유 엄정팔방 주향통서 주향공양 소청사자 소청성위 소청명부 소청고사판관의 아홉 부분으로 대분류하기도 한다.[16]

어떻게 대분류를 하더라도 금·은전의 준비와 설단과 관련된 선행의식과 사자의식, 상위와 명부의 중위와 고사관의 소청과 소청하신 성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으로 진행된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 의거해 예수재를 봉행하면, 의문에 따라 각단을 소청한 이후에 제위진백(諸位陳白)을 하고 권공해야 한다. 하지만 예수재 설행의 일반적인 현실은 각단을 초청하고 곧바로 헌공하게 되어 소청 이후의 제위진백은 의미가 퇴색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헌공의 의례에서 제위진백편의 위치가 혼동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17] 『경산예수재

15) 동주・정오 공편, 『경산전통예수재문』, 경제어산연구소, 2018.
16) 홍윤식, 「생전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pp.22-26.; 홍윤식, 「구인사 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pp.29-33.

의문』은 대우 집술 의문에 의거하여 '제위진백'편을 편찬하고 있다.[18] 이는 원 의문의 절차대로 의례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각배재의의 진행은 어떤가. 『석문의범』의 각배재의를 요약하면 이렇다.[19] 첫째, 삼지심례[20]를 올리고 향수를 중생의 심지와 도량에 뿌려 청정하게 한다. 이때 전통의 관음을 청해 대비주의 가지를 입어 그것으로 중생과 도량을 엄정하여 참회를 완성한다. 둘째, 거양(거량으로 발음되나 음가는 거양임)을 해서 회주가 설법을 한다. 이 방식은 영산작법이나 상주권공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경전 염송 의식으로 대체(代替) 가능하므로 그 의식도 동시에 싣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궐진언과 수경게송이 그 끝이 된다. 셋째, 정지(淨地)를 하고 개단과 건단 및 정법계진언을 한 이후에 거불을 한다. 이전에 상단소를 하고 삼보를 청한다. 오늘날의 삼보통청 이전의 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재공의 증명을 위해 소청한 삼보님께 노래를 읊으며 맞이하여 자리를 바치고 다탕을 올린다. 넷째 명부의 중위를 소청하는데, '각배재'라고 하면서도 도청하여 다탕을 올린다. 실제 각배를 위한 의문은 '대례청'이라고 하여 의문 뒤에 부록처럼 첨부하고 있다. 다섯째 상단과 중단에 권공하고 화청을 하여 마친다.

2) 主要 構成의 同異

양재의 주요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양재 구성 가운데 눈에 띄는 같은 점은 무엇인가. 첫째 양재에는 공히 삼지심례 의식이 봉행되

17) 어산작법보존회, 『생전예수시왕생칠재의찬문』, 생전예수재보존회, 2018.
18) 동주・정오 공편, 『경산전통예수재문』(경제어산연구소, 2018), p.96.
19) 安震湖, 『釋門儀範』 上卷(卍商會, 1935), pp.132-155.
20) 필자는 '上上壇', '雲水上壇' 등으로 稱名되는 본문 이전 고함의 대상인 변재삼보에게 아뢰는 의식을 '삼지심례'(이성운, 「『志磬文』 編修와 그 特性 考察 , 『신편수륙의문: 발표문, 대례지반문』, 경제어산연구소, 2017.5.27., 부록 pp.5-7.)라고 칭명하였다.

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엄정을 위해 대비주를 활용하는 점이다. 셋째 향수를 뿌려 도량을 엄정한 다음이나 이전에 설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상위와 중위의 소청을 마치고 공양의식이 행해진다는 점이다. 다섯째 중위의 대상은 명부시왕과 그 권속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재의 차이는 무엇인가. 각별한 차이와 대소의 정도 차이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각별한 차이로는 예수재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조전의식과 빚을 탕감에 대한 의식이 각배재의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사단 소청이나 함합소를 아뢰거나 분절하여 소지(燒紙)하는 장면은 각배에서는 볼 수 없다.

예수재의에는 아홉 단의 구성을 볼 수 있다. 삼신불단인 상상단, 지장보살과 협시존의 상중단, 범왕과 제석천 사천왕의 상하단, 명부시왕의 중상단, 하판관과 귀왕 사자 등의 중중단, 시왕내의 권속인 중하단, 사실상 하단의 역할을 하는 별치단인 고사단・사자단・마구단이 그것이다. 하지만 각배재의의 상상단은 변재삼보를 청해 증명단으로 삼고, 명부중위에는 지장삼성을 증명단으로 삼으며. 시왕과 그 권속이 소청된다.

3. 設行의 同異

그렇다면 목적과 구성 외에는 어떤 것들이 양재의 동이로 언급될 수 있을까. 첫째 언제 설행되는가 하는 점이다. 각배재의는 망자의 추천이라고 하였지만 추천의 때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칠칠재의 칠재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예수재의는 일반적으로 윤달에 행하는 재라고 이해하고 있지만[21] 예수재의 저본이라고 할 수 있

21) 『동국세시기』 등에 의하면 윤달에 예수재를 설행하였다는 것으로 볼 때 조선 후기에 예수재 설행은 본래의 독판의 개념보다 동참의 개념으로 작동되었다고 보인다.

는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이나 『불설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경(佛說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에는 윤달이라는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예수생칠재의를 닦는 이들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 두 차례에 걸쳐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기원할 시왕단을 설치하고 시왕께 기도하라고 하고 있다.[22]

양재는 '생전'과 '사후'라는 설행 시기와 '자행'과 '대타'라는 설행 주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는 설행의 동등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라면 '예수'와 '추천'의 대상인 '특정인'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예수재 양상으로는 동의되지 않을 수 있다. 예수재는 설판재자 중심이 아니라 동참재자들로 설행되기 때문이다. 다음 장의 논의이지만 예수재 의문에는 동참이라는 의미보다 특정 생자를 위한 재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설행의 시기는 등가성이 적지만 예수와 추천의 대상이 특정 모인 또는 특정 영령이라는 점은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양재의 목적과 설행의 동이 등으로 볼 때 양재 설행의 근본 메시지는 선업을 닦고 악업을 멈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향후의 제위의 역할을 통해 인과법을 잊지 말고 보살의 행원을 닦으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게 된다.

Ⅲ. 諸位의 召請과 役割의 同異

여기서 제위란 양재를 위해 양재에 소청(所請)되는 존재들을 의미한다. 이들의 역할은 아뢰이나 청하는 말에서 나타난다. 제위의 명칭에 그 의미가 담겨 있거나 가영 등에 나타난다. 이를 통해 양재에서

22) 藏川 述,『佛說預修十王生七經』(X 1), p.408.

소청되는 동일한 존재들의 역할도 같은 듯 달리 보이기도 한다. 또 같은 존재라도 소청되는 위치가 다르다. 이것은 해당 존재의 위격이 달리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양재에 소청되는 주요 존재와 그 역할을 일별해보기로 하자.

1. 諸位의 召請

1) 召請의 次第

동일한 시왕을 중심으로 청해 공양 올리는 양재의 동이를 판별해 보기 위해서는 양재에서 소청(召請)하는 제위와 그 순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광흥사판 예수재의문(『한의총』 2집 67~86)과 현행 예수재의문,[23] 각배재소청(『석문의범』상권 132~154)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예수재와 각배재의 소청 차례

예수시왕생칠재의[현행예수재]	각배재
[상주삼보]	상주삼보
[관세음보살]	
사직사자	설법회주
소청성위	상위삼보
비로자나불	진여불보
노사나불	심심법보
석가모니불	청정승보
지장보살 등 육광보살	
비로자나화신천조 등 지장화신천조	
도명존자 무독귀왕	
대범천왕 제석천왕 사천왕	
	소청중위
소청명부	지장보살마하살
[중상단]	좌보처 도명존자

23) 동주・정오 공편, 『전통예수의문』, 경제어산연구소, 2018.

풍도대제 하원지관 지부일체성중	우보처 무독귀왕
제일 진광대왕과 권속	제일 진광대왕
제이 초강대왕과 권속	제이 초강대왕
제삼 송제대왕과 권속	제삼 송제대왕
제사 오관대왕과 권속	제사 오관대왕
제오 염라대왕과 권속	제오 염라대왕
제육 변성대왕과 권속	제육 변성대왕
제칠 태산대왕과 권속	제칠 태산대왕
제팔 평등대왕과 권속	제팔 평등대왕
제구 도시대왕과 권속	제구 도시대왕과 권속
제10 오도전륜대왕과 권속	제10 오도전륜대왕과 권속
[중중단]	태산부군
26위 판관 및 삼원장군	오도대신
37위 귀왕	18지옥
인혼부재 호지지로의 선악동자 및 사자등중	24위 판관
	36위 귀왕
[중하단]	삼원장군
제일 진광왕 안렬종관 등	2부동자
제이 초강왕 안렬종관 등	제위사자
제삼 송제왕 안렬종관 등	부지명위 제영재등
제사 오관왕 안렬종관 등	우두마면 졸리아방 제위등중
제오 염라왕 안렬종관 등	
제육 변성왕 안렬종관 등	
제칠 태산왕 안렬종관 등	
제팔 평등왕 안렬종관 등	
제구 도시왕 안렬종관 등	[소청삼악도]
제10 오도전륜왕 안렬종관 등	시방법계 지옥도중 수고유정
7위 영관 난사난량 성위등중	시방법계 아귀도중 수고유정
부지명위 제판관등	시방법계 방생도중 수고유정 각
고사판관	위등중

양재의 소청에 보이는 동이 등 특이 양상을 살펴보자.

첫째, 예수재 의문은 수륙재의 형식에서와 같이 법회를 알리는 사자의식이 존재하는 데 비해 각배에서는 사자가 초청은 되지만 별도의 사자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예수재에서는 풍도대제가 시왕 이전에 청해지는 데 비해 각배에서는 태산부군이 10왕 소청 다음에 청해진다.

셋째, 예수재에서는 상위와 명부위의 공양이 끝난 다음에 함합문을[24] 읽고 난 다음 시식을 행하고 있는 데 비해 각배의 경우 시왕소에서 삼악도의 유정을 소청하고 있다.

넷째, 예수재에서는 고사관이 청해지나 각배에는 어느 곳에서 청해지는지 그 모습이 명확하지 않다.

다섯째, 예수재에서는 법주 설법 모습을 볼 수 없으나 각배에는 설법의식이 시설(施設)되고 있다.

여섯째, 예수재에서는 삼신불과 지장보살 등 육광보살, 화신천조 도명 무독귀왕이 상위에서 소청되고 있으나 각배에서는 삼신이 아닌 삼보가 소청되고 있다. 예수재에는 법보에 대한 존위는 별도로 소청되지 않고 있다.

양재의 차례(次第)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제시한 예수재와 동일인이 집술한 용복사판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는 중위의 풍도대제가 소청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5] 풍도대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둘째, 각배재의 의문은 실제 각배가 아니라 광략(廣略)이라는 의미에서 도청의 의문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각청의 대례청이 제시되어 있다. 약례의 소청중위 증명단으로는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이 소청되지만 대례청의 증명 삼존은 지장보살과 더불어 도명존자와 대변장자가 소청되고 있다.

---

24) 현행 예수재에서는 '함합소'라고 불리고 있으나 광흥사판에는 함합문이라 칭해지고 있다.

25)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韓儀叢』 2), p.105,하.

2) 풍도대제와 태산부군의 위격

예수재의문에는 소청명부의 선두에 풍도대제가 소청되고 있는 데 비해 각배재의에는 태산부군이 시왕 소청을 한 다음에 소청되고 있다. 그렇다면 명계의 풍도대제와 태산부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어떨까. 먼저 각배재의나 예수재에 등장하는 시왕은 도불(道佛) 혼합으로 대개 도교 경전에 의거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또 명부 시왕의 명칭이 언제부터 성립되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의 성립을 염두에 두면 당말송초에 완비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왕사상은 도교사상과 유교의 삼년 거상제와 불교의 인과응보사상 육도윤회사상의 혼합되어 이뤄졌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된 도교 경궤로는 『원시천존설풍도멸죄경(元始天尊說酆都滅罪經)』·『태상교고천존설소건멸죄경(太上敎苦天尊說消愆滅罪經)』·『지부시왕발도의(地府十王拔度儀)』가 있다. 시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시왕과 도상은 다분히 중국적이어서 중국에 유입된 불교의 명부신왕이 당시의 도교, 유교와 상호간에 교류와 소통으로 중국 신앙 체계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26] 이와 같은 신앙체계는 고려 초에 국내에 유입되어 시왕신앙으로 정착되어 있고, 16세기 중반 이후 예수재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도교 경전에서 명부의 주재자는 풍도대제, 태산왕, 염라왕 등으로 달리 나타나고 있고, 한국사찰 명부전의 염라왕은 지장보살의 아래 한 왕으로 제5전에 배열되고 있다. 5전이 중앙에 시설되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대부분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이 주존으로 신앙되고 있어 명계의 중심 왕이 염라왕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태산왕은 중국 명부의 왕이라고 하고, 천제는 6도를 총통하는 천조이며, 염라왕은 인간의 천자와 같고, 태산부군은 상서영록과 같으며 오도신은 제상서와 같다. 즉 전 우주를 통괄하는 천제 밑에 명부의 최고 책임자

26) 최미연, 『불설예수시왕생칠경판에 대한 연구』, p.19.

로서 태산부군이 종속할 것 같으나 지옥과는 불가분의 관계인 염라왕이 끼워들어 우위에 서고, 천제 → 염라왕 → 태산부군 → 5도신이라는 명령 계통이 세워진다. 이와 같이 중국의 시왕설과 지옥설은 다양한데, 중국대륙을 지옥설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북의 두 신앙권역으로 나눠진다. 곧 북방권역은 산동의 태산을 기점으로 하여 서방 밑 동북으로 뻗어 있어 황하유역에 보급된 소위 태산지옥 세력의 범위이며, 남방은 사천 풍도현(酆都縣)을 거점으로 서쪽으로 사천 귀주, 동으로 장강 중류 하류의 제성에 미치고 있다.[27]

결국 중국 남방 지역의 풍도대제, 북방 지역의 태산부군이 명부의 왕으로 신앙되고 있으나 한국불교 예수재에서는 풍도대제가 일부 명부의 시왕의 상왕 격으로 신앙되고 있고, 각배재의에서는 시왕을 밑받침하는 태산부군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풍도대제와 태산부군이 시왕의 상왕이나 그 부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불교의 신앙체계 상의 증명불보살이 상단에 존재하므로 그 역할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2. 諸位의 役割

불교의 재의(齋儀)에 초청되는 일체의 존재들은 다 자신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은 표백문이나 유치 아니면 소문 청사 가영 등에서 표현된다. 이 글에서는 양재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제위의 역할만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장보살

명부시왕의 상위 삼존인 양재의 지장보살의 청사와 가영을 대비해

27) 홍윤식, 「구인사 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pp.24-25.

보자.

[예수] 大悲爲本 陰陽之界 現無邊身 廣濟郡迷 世尊收化 而白佛言 末世衆生 我乃盡度 居歡喜國 南方化主 今日道場 若不降臨 誓願安在 是我本尊 地藏大聖爲首 龍樹菩薩 觀世音菩薩 常悲菩薩 陀羅尼菩薩 金剛藏菩薩 ~
掌上明珠一顆寒 自然隨色辨來端 幾廻提起親分付 閻室兒孫向外看
[각배] 悲增示跡 苦趣留形 救六道之群生 滿四弘之誓願 大悲大願 大聖大慈 本尊地藏王菩薩 左右補處 道明無毒 兩大聖衆 ~
掌上明珠一顆寒 自然隨色辨來端 幾廻提起親分付 閻室兒孫向外看

앞의 소청에서도 비교되고 있지만 예수에서는 지장보살이 용수보살 등 여섯 보살과 함께 청해지고 있지만 각배에는 지장보살이 좌우보처와 함께 중위 시왕의 상단으로 소청되고 있다. 그런데 두 청사의 내용상 성격은 다르지만 가영은 동일하다. 말세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지장보살의 서원이 큼이 강조되고 있으며, 의미상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런데 각배의 대례청에는 지장보살이 홀로 청해지고 있는데 연기와 형상이 설해지고 있어 위의 청사와 대조된다.

[각배 대례청] 閻摩羅 幽冥界 毳衣圓頂 示相沙門 慈門廣大 願海弘深 現無邊身 代衆生苦 門前振錫 獄內放光 令諸衆生 離苦受樂 大悲大願 大聖大慈 本尊地藏王菩薩
十九生來爲善女 脫衣入地號地藏 冥間爲主度生願 地獄門前淚萬行[28]

위의 청사나 가영은 지장보살의 구제가 강조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육도중생으로 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래 대례청[대례왕공]의 청사와 가영은 지장보살의 '지장(地藏)'이 강조되며 육도 중생 가운데

28) 安震湖, 『釋門儀範』上卷, p.144.

지옥의 유명계 중생의 구제(救濟)가 강조되고 있다. 양재의 청사 가영은 지장보살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편의 지장보살이 그려지고 있지만 대례청의 지장가영에는 『지장보살본원경』의 전생담을 바탕으로 하여 땅속으로 들어가 중생을 건지며 지옥 문 앞에서 주장자를 울려 지옥문을 열고 천 줄기 만 줄기 눈물을 흘리는 지장보살이 묘사되어 있다. 이 문장은 『천지명양수륙의문』(양악본) 지장청사의[29] 요약으로 보인다.

양재의 지장보살 출현 배경의 특이점을 보면, 예수재에서는 금일 예수도량에 강림을 청하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고, 각배에서는 지옥에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의 보처를 받는 지장보살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양재의 지장보살은 한편은 육광보살과 대동하고 한편에서는, 보처존과 대동함으로써 재 규모의 대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이며, 예수에서는 상위로 소청되고, 풍도대제가 중위의 증명 역할을 하며, 각배에서는 지장삼성이 중위의 증명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염라대왕

염라왕은 명계 시왕의 가운데 왕이다. 염라왕은 인도의 야마왕(Yama-rāja)에서 유래하는데, 염라왕(閻羅王) 염마왕(琰魔王) 사왕(死王) 등으로 불리며, 귀신세계의 시조, 명계의 총사(총사령관)이라 한다. 염라왕의 뜻은 형과 매(妹)로서 형은 남자들의 일을 다스리며, 매는 여자들의 일을 다스려서 쌍왕이라 불리는데,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受苦與樂]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죄인들이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게 한다는 의미이다. 죄인들은 이 염왕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악을 알게 되고 죄업을 쉬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평등한 업경대가 등장하였다.

---

29) 楊顎 編, 戴曉雲 校點, 『天地冥陽水陸儀文』 卷中(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p.75.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중국의 시왕사상을 만나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그렇다면 양재의문의 염라왕 소청과 가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예수] 於未來世 當得作佛 號普賢王如來 十號具足 國土嚴淨 百寶莊嚴 國名華嚴 菩薩充滿 第五閻羅大王
> 冥威獨出十王中 五道奔波盡向風 聖化包容如遠比 人間無水不朝東[30]
> [각배] 因從願力 冊號法王 住贍部南之金山 處沃焦下之寶殿 冥中統御總判陰司 第五閻羅大王
> 冥威獨出十王中 五道奔波盡向風 聖化包容如遠比 人間無水不朝東[31]

양재의 염라대왕의 서술의 대의는 다르지 않다. 내세에 불도를 이뤄 보현왕여래로 불린다는 예수의 청사나 원력으로 법왕이라 책호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 하지만 그 역할의 서술은 예수의 입장을 반영하듯이 달리 표현된다.

예수재의의 청사는 염라왕이 향후 여래를 이뤄 보현왕여래가 되고 십호를 구족하여 완전한 붓다가 된다고 하며 그곳을 설명한다. 국토가 엄정하고 백 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나라 이름이 화려하게 장엄되었다. 해서 화엄이라고 하며 보살로 충만해 있음을 강조하여 현실세계적인 장면을 중심으로 묘사하여 소청한다.

그렇지만 각배재의의 청사는 원력이 강조되고 남섬부주 금산에 머물러 계시며 옥초산의 보전에 거처하신다고 하여 명계가 강조된다. 아울러 명계의 실질적인 통수권자요 음사의 총 재판관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왕의 중앙에 모셔지는 것이 적의하다. 하지만 한국불교 시왕전 또는 명부전에는 시왕의 증명삼존이 중앙에 위치하여 염라왕은 지장보살의 좌측 3번째 모셔지고 있다.

---

30) 大愚 集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卷(『韓儀叢』 2, 광흥사판), p.74,상
31) 安震湖, 『釋門儀範』上卷, pp.146-147.

결국 예수재의 염라왕 청사는 국토의 엄정과 백보 장엄이 강조되며 화려하게 장엄된 세계와 행원을 닦는 보살이 충만함을 강조하는 현실세계관이 투영되어 있고, 각배재의 그것은 명계의 심판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염라왕이 양재에서 소청되지만 양재 설행 목적의 차이는 양재에서 추구하는 바람인 현실과 사후의 역할을 투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현실에서 보살행원을 실천하여 사후의 명계를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Ⅳ. 系統과 底本의 同異

시왕에 대한 권공이 중심인 양재는 어떤 계통 위에서 성립되었고, 양재 의문의 저본은 무엇인가. 이 논의에는 역사적 전거사료가 절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시왕이나 예수재에 대한 역사 사료는 빈곤하다. 단지 몇몇 설행 역사와 의궤와 의문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논의를 놓을 수는 없다. 왜인가. 제 의례의 수요와 행위의 보편성은 시대와 역사를 관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系統의 同異

예수재나 시왕재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경궤의 출현은 양재의 설행 시기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예수재의 소의경전으로 알려진 『예수시왕생칠경』은 1246년 고려시대 정안에 의해 간행된 본이 전해지고 있고, 조선 시대에는 15세기 중엽에도 간행이 이어졌다.[32] 또

32) 최미연, 『불설예수시왕생칠경판에 대한 연구』, p.14.; 한상길, 「조선시대

송당야납(松堂野衲) 대우(大愚)가 집술(集述)하였다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현재 18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16세기 중반에 처음 나타나고 있다.[33] 『예수시왕생칠경』은 성도부 대성자사 사문 장천이 술(述)하였다고 하고,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대우가 집술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장천은 『예수시왕생칠경』이 간행되기 이전 당나라 때 인물이니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집술자 대우(大愚)의 생몰은 17세기(1676~1763)로 보고되고 있어[34] 문제가 된다. 대우는 속성이 박(朴)씨이고 법호 벽하(碧霞)이며 전라도 영암에서 출생하였고 해남 대흥사(大興寺)의 13대종사(大宗師) 중 제8대 종사라는 것이다. 이 생몰시기를 받아들이면 조선시대 간행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18종의 찬자는 물론 개판지와 시기 등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대우가 집술했다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어떻게 집술되었고, 어떤 경궤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예수재와 시왕각배의 소의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시왕생칠경』의 의궤라고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소의경전에 의거하여 집술된 의문일까 하는 점이 해명되어야 양재의 계통은 어느 정도 그 면모가 드러날 수 있다. 물론 계통을 정치하게 확인하려면 경전과 의궤를 대조하며 검토해봐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 의례의 목적이나 제위의 역할 등도 소의경전에 서술된 것과 어느 정도 일치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미상의 소의경전일 뿐이지 의궤 등은 다른 계통의 영향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재의 소의경전이라고 하는 『예수시왕생칠경』과 양재의 의문에 나타나는 소청의 대상 등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동이(同異)를 발견할 수 있다.

생전예수재의 전개 , pp.33-35.

33) 한상길, 「조선시대 생전예수재의 전개 , pp.35-36.

34)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4619

첫째, 『예수시왕생칠경』에는 지장보살 등 육광보살은 등장하지만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은 등장하지 않는다.

둘째, 양재의 표백이나 가영 등을 볼 때 그 근원이 소의경전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소의경전에는 시왕의 역할에 대해 각 재의 경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지만 양재에서는 각 시왕의 역할과 찬탄이 중심이다.

셋째, 양재의 시왕 청사나 소청은 『천지명양수륙의문』(자기문)[35]이나 『권공제반문』[36] 등을 따르고 있는데, 『권공제반문』은 지장보살·도명존자·대변장자의 소청은 『자기문』을 따르지만 가영은 따르지 않으며, 현재의 예수재의와 각배재의의 그것과 일치한다.

넷째, 『권공제반문』 등 '제반문' 계통은 시왕공양인데, 시왕을 공양하는 예수의문과의 계통이 반드시 일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기문』 등 수륙의문 계통에서는 지장보살이 명부시왕전을 통할하는 입장이고, 『권공제반문』 계통에서는 명부 시왕을 증명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지옥중생 구제를 위해 천 줄기 만 줄기 눈물을 흘리는 명부중생의 구제자적 존재이다.

결국 양재는 유사하지만 지장보살과 삼존에 대한 인식이 통할과 증명이라는 입장에서 미세하게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예수문은 수륙의문인 『중례문』 계통을 잇고 있고,[37] 각배는 시왕헌공의 '제반문' 계통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재는 설행목적이나 의미와 등장 존위의 동일하거나 유사함 등으로 인해 현재의 전승은 혼재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수재나 시왕재의 소의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시왕생칠경』의 육광보살이 예수재에는 등장하지만 각배의 『제반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도명화상과 더불어 대변장자[38] 등이 교체과정을 거

35) 仔夔 集, 『佛說焰口經天地冥陽水陸儀文』 卷下, pp.3-8.
36) 『勸供諸般文』(釋王寺, 1574, 『韓儀叢』 1), pp.653-656.
37) 이성운,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 『정토학연구』 제23호(한국정토학회, 2015), pp.19-21.

쳐 각배에서 거불과 증명의 존명이 일치되게 되었다고 보인다.

2. 底本의 同異

수륙의문 계통과 제반문 계통으로 시왕헌공 의문은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시왕대례, 대례왕공 등으로 불리던 것이 『석문의범』에 이르면 전부를 한꺼번에 청하는 도청에 대해 시왕 각각을 청해 공양하고 예배한다는 의미의 각배로 명칭 되고 있다. 11세기 국내에 처음으로 시왕사가 건립된 이후 시왕에 대한 권공의식은 발전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왕에 대한 헌공이 예수의식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수재'라고 부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생칠경』'에 의하면 사후 칠칠의 헌공을 위해 살아서 초하루 보름에 행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 항목 계통의 동이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재의문은 수륙재의문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예수재 의식은 『예수시왕생칠경』과 『예수천왕통의』에 의거하지만 그 의문의 출전은 『천지명양수륙의문』에서 편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각배 의식은 『제반문』 계통의 형식이 전승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유사한 의식은 소의경전도 중요하지만 각 의식의 원형 내지 저본의 확정에 연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양악 편 『천지명양수륙의문』의 시왕은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대변)[39] 장자와 함께 <명청명전시왕의(命請冥殿十王儀)에서 소청(所請)되고, 자기 집 『천지명양수륙의문』의 시왕은 <소청시왕등요명부중편(召請十王等邀冥府衆篇)에서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대변장자와 함께 소청된

38) 『諸般文』, 海印寺, 1719, 『韓儀叢』 2, p.641.

39) 楊顎 編, 戴曉雲 校點, 『天地冥陽水陸儀文』 卷中, p.75. "道明慈造, 時時誘接於冥司. 長者悲情, 日日接휴於地府."라고 하고 있다. 장자는 대변장자로 추정할 수 있는데, 도명은 자(慈)와 대변장자는 비(悲)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 특이하다.

다. 예수재나 각배재나 청사는 공히 『자기문』을 따르지만 가영은 두 의문에서 찾을 수 없다.

결국 양재의 저본은 수륙의문에 의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영은 국내 찬술로 보이는 『제반문』에 의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해지고 있는 『권공제반문』이 비록 16세기 후반의 본이기는 하지만 예수재가 편찬되었다고 보이는 16세기의 시왕신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 근거한 예수재 의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시왕재나 소번재와 같은 양상이 16세기 중반 이후에 수륙재 『중례문』 중단의 명도(冥道) 권공이 분화돼 '예수재'형태로 발전하였다고 보이지만 분명한 사료 수집 등 향후 고구되어야 할 과제가 남는다.

Ⅳ. 結語

동일한 『예수시왕생칠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는 예수재와 각배재는 한국불교 재공의식에서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 분류되기도 하지만, 양재를 분석해 보면 내용과 형식으로 분류되는 상대적인 의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예수재와 각배재의 동이를 중심으로 전개한 말글은 다음과 같은 맺음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양재의 설행 목적을 고찰한 결과 예수재의는 자신의 사후 칠재를 내가 닦는 자행의 의례이고, 각배재의는 다른 이들이 다른 이를 천도하기 위해서 설행되는 대타성이 강한 의례이다. 그렇지만 양재는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둘째, 예수재에는 조전(造錢) 의식이나 함합소(緘合疏) 등이 행해지

고, 각배에는 설법의식으로 망자의 공덕을 지어주는 모습이 등장한다. 해서 예수재에는 고사관이 소청되고, 각배재의에는 증명 삼성과 시왕과 그 권속의 소청으로 구성된다.

셋째, 예수재에서는 수륙재에서와 같이 사자의 소청의식이 설행되나 각배재의에는 사자도 그 권속으로 청해지고만 있을 뿐이다. 사후(死後)이므로 망자가 저승에 이르렀으므로 그렇다고 보인다. 한편 풍도대제와 태산부군이라는 중국의 명부신앙의 대상이 양재에 공히 등장하나 의미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상위의 증명 불보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양재에서 지장보살의 역할은 유사하지만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예수재에서는 지장보살의 구제(救濟)가 강조되고, 각배재의에서는 지장(地藏)의 체현이 강조된다. 염라왕의 경우도 예수재에는 현실적인 국토 장엄(莊嚴)이 강조되는 데 비해 각배재의에는 명계의 심판성(審判性)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양재 공히 수륙의문을 잇고 있다고 보이지만 각배재의 경우는 시왕권공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권공제반문』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가영의 경우는 양재가 공히 『권공제반문』을 따르고 있는데 『권공제반문』에 없는 고아게송이 예수재의에는 나타나고 있다.

유사한 양재가 선업을 닦거나 닦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양재에 담긴 의미는 선업 닦기 강조와 악업 짓기 멈춤이라고 읽힌다. 단순히 선업을 짓고 악업을 멈추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과에 터하는 보살의 서원을 전하는 강렬한 교훈이 서려 있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원전>
藏川 述,『佛說預修十王生七經』, X 1
仔夔 集,『佛說焰口經天地冥陽水陸儀文』, 卷下
學祖 譯,『作法節次』,『韓儀叢』1, 1496.
大愚 集述,『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韓儀叢』2, 1576.
『靈山大會作法節次』,『韓儀叢』2, 1634.
『勸供諸般文』, 釋王寺,『韓儀叢』1, 1574.
『諸般文』, 海印寺,『韓儀叢』2, 1719.
『消災吉祥佛經要集』, 1926.

<단행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1998.
동주・정오 공편,『전통예수재의문』, 경제어산연구소, 2018.
松亭 金赫濟 編著,『消災吉祥佛經寶鑑』, 明文堂, 1965.
安震湖,『釋門儀範』上卷, 卍商會, 1935.
楊顎 編, 戴曉雲 校點,『天地冥陽水陸儀文』卷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어산작법보존회,『생전예수시왕생칠재의찬문』, 생전예수재보존회, 2018.

<논문>
노명렬,『현행예수재와 조선시대 생전예수재의 비교 고찰』, 중앙대 박사 학위논문, 2010.
이성운,「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정토학연구』제23호, 한국정토 학회, 2015.
_____,「『志磐文』編修와 그 特性 考察」,『신편수륙의문: 발표문, 대례지 반문』, 경제어산연구소, 2017.
최미연,『불설예수시왕생칠경판에 대한 연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4.
최운종,『조선전기 생전예수재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한상길,「조선시대 생전예수재의 전개」,『생전예수재 연구』, 사/생전예수

재보존회 엮음, 민속원, 2017.
홍윤식, 「생전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생전예수재 연구』, 사/생전예수재 보존회 엮음, 민속원, 2017.
_____, 「구인사 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전승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대한불교천태종, (사)진단전통예술보존회, 201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4619.

KCI

Abstract

The Sameness and Difference between Yesujae and Gakbaejae

Lee, Seong-woon
(Visiting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This writing considers the sameness and difference between Yesujae(預修齋, performing the rites while one lives in order to be reborn in the Buddha's land after death) and Gakbaejae (各拜齋; one type of the rites for the spirit of the dead) whose main text is *Yesujaesiwangsaengchilgyeong*(預修十王生七經).

The Ten kings who are in the charge of judgement of the dead are invited and served offering in both rites and there are the sameness and difference in their purpose, program, whom it may concern and their role, origin and filiation,

Yesujae is the rite that one performs the ceremony of every seven days during 49 days while one is alive to be reborn in the Buddha′s land after one′s death and Gakbaejae is the rite that living others perform the consolation ceremony for the spirit of the dead to be reborn in the Land of Bliss by the grace of Buddha. But both have the same purpose that one wishes for the deceased to reborn in the Pure Land.

The fake money ceremony for the deceased to repay the debt in after life(造錢儀式) and the ceremony for burning the sealed confirmation of repayment of the debt in past life (緘合疏) are performed and the Keeper of the underworld safe (庫司官) is called in Yesujae. Dharma talk is peformed in order to work on virtue of the

deceased, and the witnesses of the three holy sages, the Ten kings and their dependents are called in Gakbaejae.

As in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the ceremony of calling the deceased(召請儀式) is performed in Yesujae but the deceased is called as a member of the dependents in Gakbaejae, as the dead has already departed this life. Although Fengdu the Great and Taishan Fujun in Chinese netherworld belief appear in both rites, they are not significant. It may be because there are Buddha and Bodhisattvas superior to them.

The role of Ksitigarbha Bodhisattva is similar in both rites but a subtle difference is that his relief is emphasized in Yesujae and his embodiment in Gakbaejae. Similarly for the King of the netherworld, his majestic ornamentation of the land is highlighted in Yesujae while his judgement in the land of the dead in Gakbaejae.

Both succeed to the offering ritual oration for land and water but the ritual oration of the latter is to invite the Ten kings to offerings, which is influenced by *Gweongongjebanmun*(勸供諸般文, *Outline of Buddhist Rituals for invitation to offerings*). Gayoung(歌詠, Buddhist music and hymns praising the virtue and merits of Buddha and gods) in both rites conforms to *Gweongongjebanmun* but Gesong(偈頌, Buddhist stanza) of Goa(故我, therefore I) which *Gweongongjebanmun* doesn't contain is chanted in Yesujae.

Yesujae was published in the 16th century but the birth and death date of its compiler,Daewoo is said to be the 17th century. This disagreement gives us the challenge to examine research material and study the time of publication of Yesujae, its filiation and influence relationship.

Key words

Yesujaesiwangsaengchilgyeong(預修十王生七經), Yesujae(預修齋, performing the rites while one is alive in order to be reborn in Buddha's land

after death), Gakbaejae(各拜齋: a type of the rites for the spirit of the dead), Yeongasnjae(靈山齊, Vulture Peak ritual). The fake money ceremony for the deceased to repay the debt in after life(造錢儀式), the ceremony for burning the sealed confirmation of repayment of the debt in past life(緘合疏), Fengdu the Great, Taishan Fujun, *Gweongongjebanmun*(勸供諸般文, *Outline of Buddhist Rituals for invitation to offerings*).

KCI

논문투고일 : '18. 10. 17. 심사완료일 : '18. 12. 4. 게재확정일 : '18. 12. 4.